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경험*

권 영 미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대학은 전인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주는 체험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면서 사회봉사기능을 대학교육의 경쟁전략의 하나로 특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사회봉사교과목의 개설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95년 가톨릭대학교, 경인여자대학, 동덕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한동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사회봉사를 교과과정에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138개 대학에서 사회봉사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있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10).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봉사기능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학 기능의 변화로 이어져 기존의 대학봉사활동의 전문화, 교육화, 지속화의 강화를 통한 전문적 대학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전문교육과 결합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전공과 연계된 봉사학습으로 확산되어 대학생의 봉사학습 참여가 급증하는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다(이성철, 이은승, 2008).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행동에 의한 학습’ 혹은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전통수업에서의 개인 학습 촉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적인 학습전략에 의해서 전공분야의 내용지식과 과정지식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전공학문이 관련된 봉사학

동을 통해 미래의 직업에 대한 사전 체험을 통하여 의식과 태도를 강화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선우현,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간호교육에서도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교육은 모든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과학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간호실무교육은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개인의 간호관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다. 실습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창의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경험을 매우 중요시한다. 경험이란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인간 내면의 변화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능동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동태적 과정이며, 이 과정에 의해 지식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직접경험은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 역동적이며 생동적인 감정과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성과 이해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인지적, 정서적, 가치적 요소를 내면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로서의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들을 만나 폭넓은 직접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실무교육은 대부분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대상자 또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주대상자로 하는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실습 경험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박정원, 하나선, 2003). 특히 노인간호실습교육은 일부 대학에서만 노인병동이

주요어 : 간호학생, 봉사학습, 경험

* 2009년 경인여자대학 연구년 논문.

1)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ymkwon@kic.ac.kr)

투고일: 2011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나 요양원을 중심으로 질환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윤은숙, 2008),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노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모호함을 경험하였다(황운영, 2005). 이와 같이 현재 간호실무교육이 안고 있는 제한된 실습환경과 간호대상자의 한계로 인해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생들에게 다양한 간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체험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한 간호학생의 실무경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봉사체험을 통해 임상실습과는 구별되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 자아성장과 의식이 확장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이, 김신미, 양승희, 2001; 송남호, 2004; Loewenson & Hunt,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봉사체험을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지행합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전공연계 봉사학습에서 간호학생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전문지식을 봉사하는 맥락 속에서 실천적인 지식으로 바꾸어나감으로써 전문가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하고, 전통적인 형식의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우수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난다(안효진, 2010; 한인영, 박형원, 김주현, 2005; Gills & Lellan, 2010). 특히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전공분야의 현실적 적합성과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전통적인 병원 중심의 임상실습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Kendle & Zoeller, 2007) 국내 간호학에서도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수준에 있는 재가노인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행동주체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근거이론방법을 통하여 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들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형성된 이론으로부터 전공연계 봉사학습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사회심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그 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을 발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개념들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과정에 관한 실제 이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주요 관심이나 주요 문제를 찾기 위하여 “전공연계 봉사학습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은 사회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가는가?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경험 속에서 주요 관심이나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발견하여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근거이론은 실제 영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적 이론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Basic Social Process[BSP])으로 구축되며, 여기에는 핵심범주 혹은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Basic Social-Psychological Problem[BSPP])가 있어 BSP와 BSPP가 이론의 단계와 함께 역어가며 중간범위의 이론을 생성한다. Strauss와 Cobin의 근거이론은 거래적 체계로서 조건의 상호적이고 상호 관련된 수준으로 구성하는 상황모형을 적용하며 과정이 선형적인 것이 아닌 관련된 연속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Glaser는 근거이론을 거래적 체계로 보지 않으며 현상이 일련의 조건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과정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문제해결과정이 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직선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chreiber & Stern,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연계 봉사학습 과정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에 근거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확인하고자 자료수집시 개인심층면담과 함께 포커스 그룹토의를 적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험세계를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그 경험의 맥락과 깊이를 이해하는 탐색적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연구주체에 관해 생성한 견해와 관점을 지닌 참여자들로 그룹을 구성하고, 그 주제에 관한 토의 시 집단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면담이나 참여 관찰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토의로 참여자들의 느낌, 의견,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그룹토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험에 대한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 심층면담으로 참여자의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를 위한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정규교육과정과 봉사를 통합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서 특별활동으로서의 봉사학습(co-curricular service-learning)으로 전공습득 내용을 사회에 환원하고 반성적 고찰과 상호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실천을 통한 경험학습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간호학생의 역량강화와 전공 교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관절염 태극권 교육을 실시하는 노인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준비단계에서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간호학생은 본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절염 태극권 국제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강사 워크숍을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면서 주차별 교육안을 작성하고 운동교육 교재를 비롯하여 활동기록 서식류와 평가용 설문지 등을 개발하였다. 봉사활동단계에서 간호학생은 본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선택권과 통제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다. 봉사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였으며, 매회 봉사활동 후 참여자들이 모여 소집단 토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반추하며 비판적으로 숙고하였다. 또한 활동일지를 작성하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분기별로 참여자인 간호학생과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봉사학습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교수는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평가의 전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지도하였으며, 매주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간호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탐색하고 재설계하고, 활동 후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며 지속적으로 성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로 관절염 태극권 국제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학생을 인위적으로 표집하여 예비 선정하였다. 예비 선정자에게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소요시간 그리

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 의지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9명으로 3학년 4명, 2학년 5명이었다. 3학년 학생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년간 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2학년 학생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질문의 개발, 포커스 그룹 진행, 개인면담으로 진행되었고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목적에 명확히 하며 질문의 아이디어를 모아 질문의 초안을 만들고, 질문의 초안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질문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를 일대일로 만나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및 방법을 다시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모임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시 포커스 그룹 토의의 집단 상호작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포커스 그룹을 학년별로 구분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는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학년별로 2회씩 총 4회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상이한 지각과 관점을 찾기 위해 허용적이고 비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토의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룹토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현장 노트를 기록하였으며, 토의 후 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또 필사하여 현장노트와 같이 여러 번 읽으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룹토의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경험과 의견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인면담으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개인면담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총 15회 시행하였으며, 1회 면담은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개인심층면담 역시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그룹토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Glaser(1998)의 근거이론방법이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계속적으로 다른 사건이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하면서 자료를 범주와 속성으로 개념화하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버거움’이라는 핵심범주 즉, 기본사회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후 버거움과 관련된 개념들만으로 이론적 표본 추출을 하였다. 발견된 핵심 범주와 관련된 개념들만으로 제한하는 선택적 코딩과 범주와 범주, 그리고 범주와 범주의 속성간의 개념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이론적 코딩 과정으로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버거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자 준비과정으로 근거이론방법 및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질적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동안에도 근거이론방법론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주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참관하여 간호학생들의 활동내용을 탐색하고 소그룹 토의시 배석하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들으며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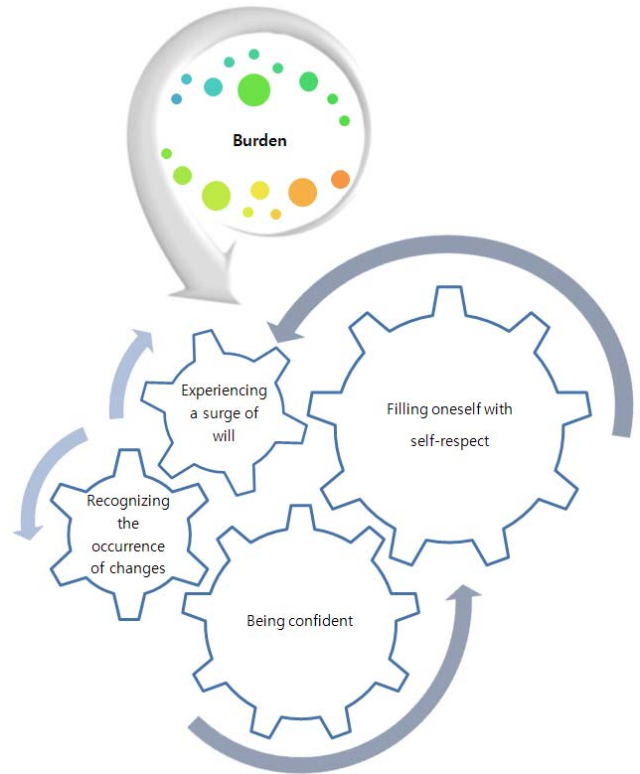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으로서 생생한 경험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포커스 그룹토의를 통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경험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확보하였다. 포커스 그룹토의를 종료하면서 연구자가 토의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개인면담시 포커스 그룹토의에서 도출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함과 동시에 심층적 질문으로 개별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을 이끌어내고 면담내용을 참여자에게 요약함으로써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자 중 3명으로부터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행동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2명의 간호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는 ‘버거움’이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일깨워감’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낯설고 거북하고 힘에 겨운 느낌을 해결하여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하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까지 자신을 일깨워 나가는 과정은 <Figure 1>과 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순환되었다.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 버거움

참여자인 간호학생이 노인건강증진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는 ‘버거움’으로



<Figure 1> The experience of service-learning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of the nursing students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경험과 지식 습득에 대한 기대감과 의욕을 갖고 봉사학습 활동을 시작했으나 강사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커짐과 동시에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 긴장감 또한 상승하여 힘에 부친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수혜자 역시 접촉이 없거나 적었던 노인을 대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핵가족에서 성장하여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고, 이전의 봉사활동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편중되어 있어서 노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과 편견을 갖고 노인을 대하다보니 낯 설음, 떨림, 거리감, 불편함, 거북함, 조심스러움 등의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봉사학습활동을 지속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개인적 생활을 접는 등 생활패턴이 바뀌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양가감정으로 인하여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사를 한다는 게 아주 큰 부담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 서 의식적으로 잘해보려는 애를 많이 썼어요”(참여자A)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강사로 앞에 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압박감이 컸어요”(참여자D)

“어르신을 잘 모르고 어르신을 대해본 경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컸어요”(참여자C)

“봉사활동을 나오기가 진짜 싫은 날 갈까 말까를 고민해요 가지 말자 마음먹고 자고 일어나면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냥 일어나서 (봉사를) 갔다 오면 되는데 더 자고 싶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잤나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이 또 고민을 해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참여자B)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 자신을 일깨워감

● 의욕이 샘솟음

참여자들은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태극권을 배우고 국제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강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낯설고 생소하였으나 이런 첫인상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가시적인 이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라는 남다른 특별함에 매료되어 있었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경험을 실제로 행하고 겪어보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힘을 얻고 이것이 또 다른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또한 접할 기회가 적었던 노인을 봉사수혜자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행동의 변화를 발견하고 운동 효과를 확인하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강화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 자신을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국제 강사 자격증은 어디서든지 사용가능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고 간호사이트에서도 태극권 관련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하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참여자H)

“태극권을 배우고 색다른 자격증도 따면서 자격을 갖춘 강사라는 역할도 흥미로웠어요 노인분들을 매주 뵙고 함께 운동하고 교감도 나누는 색다른 봉사였어요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정해서 다시 또 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이 해보고 노력하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참여자A)

“태극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프로그램 계획을 하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해가면서 태극권에 대한 개념이나 활동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혀갔어요”(참여자G)

“이전에는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아이들과 놀아 주거나 청소 하는 정도의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전 봉사활동과 달리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는 것이 힘을 내게 만들어요”(참여자B)

“힘들어도 계속 나온 이유는 하다보니까 재미가 생겼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노인분들도 매주 계속해서 만나고 선후배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참여자C)

● 변화가 일어남

두 번째 단계는 참여자 자신의 안팎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남’의 단계이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노력하는 자신을 지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변을 둘러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터놓고 이해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특히 계속되는 체험을 통해서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에게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져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편안해지고 살가워지면서 친숙한 사이로 발전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하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 친구, 수혜대상자, 지도교수 등의 평가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습관처럼 고착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엔 실수도 잦고 부담스러워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니까, 그리고 (강사를) 많이 해보니까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눈에 보이고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고 방법도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강사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고 배워요”(참여자D)

“표정도 밝아지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요 예전엔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자기의견을 내세울 때도 자기를 좀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 말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려고 하는 변화가 있었어요 조바심 내던 것도 지금은 여유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행동 속에 많이 묻어 나와요 저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진짜 뭔가 직접 느끼고 뭔가 이렇게 변화 됐구나, 정말 나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

이 이걸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참여자G)

“처음에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의식적으로 다가가고 말뼉이 되어드렸던 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잘되고 잘 적응해 나갔어요.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제 자신이) 변한 것 같아요. 어른이라는 부담감,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토요일엔 늦게 일어나곤 했는데 이젠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봉사활동이 없는 날에도요 습관이 되었나봐요”(참여자A)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혼자 하려는 욕심이 컸어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일을 그렇게 벌여놓은 건데도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보니까 같이 해야지 일이 잘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일이 잘된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지니까 서로 대하는 것도 좋아지고 지금은 아주 친해졌어요”(참여자F)

● 당당해짐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매사에 피하지 않고 부딪쳐 보고 새롭고 낯 설은 것을 직접 해보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졌고,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터득해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여유와 재미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힘이 북돋워지고, 발표력, 의사소통기술, 유대관계,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참을성, 포용력, 협력, 리더십 등이 자신의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되어 가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처음엔 강사역할이 부담스러웠는데 하다보니까 점점 편해지고 괜찮아 졌어요. 이제는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요.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제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요. 좀 더 편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대화도 잘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참여자E)

“1학년 때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끌려가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갖고 어르신들을 이끌어가요.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조정해가고.. 그러면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용기도 생기구요”(참여자B)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요. 어디 가서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해볼 수 있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참여자G)

“처음 해보는 것들은 감피를 못 잡았고 난감해 했는데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자꾸 해보니까 이젠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요”(참여자E)

“처음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나갔는데 엄마가 많이 부지런해 졌다고 하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왠지 좀 뿌듯해지고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면이 바뀌었구나. 이런 안 좋은 점이 변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참여자D)

“노인 한분이 운동 중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는데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실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 바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그일 이후로 세심하게 노인분들을 살피고 그리고 배운 대로 적용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여전히 학습, 경험이 중요함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참여자H)

● 자부심으로 채워짐

네 번째 단계는 매주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 온 자신의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스스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우며, 봉사활동이 습관처럼 생활 속에 배어들고 자신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며 성숙하였다는 점에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자부하고 있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타인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지가 더욱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가치관과 간호관에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토요일에 꾸준히 나온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토요일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매주 봉사나 간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른 친구보다 시간을 좋게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쭐해져요”(참여자E)

“더 자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날 이기면 내 자신한테 뿌듯해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뿌듯해요. 방학 때는 ‘하기 싫은데 그냥 아르바이트나 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봉사를 하는 것은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동아리 얘기 들으면 봉사 동아리가 아닌 것 같고 보통 1학년만 봉사를 나가는데 우리는 1,2학년이 모두 하나씩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매우 성실하게 한다는 것, 실질적인 봉사를 한다는 것이 다른 동아리와 달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우리는 진짜 봉사를 해요”(참여자B)

“어르신들 동작이 계속 틀리면 처음엔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되고 무척 뿌듯하고 그래요”(참여자D)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워가며 하는 거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도움이 될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오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자신도 무척 좋았고요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 제 자신한테 발전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냐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줬던 게 봉사였어요 봉사가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인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어요”(참여자H)

“봉사를 하면서 많이 성숙했어요 나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봉사활동하면서 나오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주변사람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구요 처음엔 많이 부딪치기도 하며 충돌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일 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껴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대학생들 동안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자체가 제 생활의 한부분이 되었어요”(참여자F)

“봉사하면서 경험한 것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되니까 무척 좋았어요 봉사를 계속하다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성실함도 생겼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참여자E)

“제 자신을 다시 정립하고 새롭게 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알고 고치고 장점으로 키워가고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를 통해서 참 많은걸 배웠구나 싶어요 봉사를 통해서 앞으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도 준비된 것 같고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참여자G)

논 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사회심리적 문제는 ‘버거움’으로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지식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강사역할과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서 드러나는 자신의 미숙함, 부족함 때문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려는 책임감이 커지면서 버겁다는 느낌도 점차 커졌다. 이러한 버거움은 대학생들의 봉사경험에 관한 선행연구(권영미, 송미승, 2002; 김도희, 김은영, 김경희, 이영선, 2007; 류나미, 최은희,

2007)에서 확인된 당황함, 놀라움, 어려움, 부담감, 힘듦, 두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는 유사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버거움’은 선행연구결과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류나미와 최은희(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속성은 기존에 경험해 보지 않던 영역에서의 불분명한 역할과 지식 및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부담감과 봉사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편견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버거움’의 중심에는 연구참여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성취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선택한 활동에 대한 약속이행을 중요시하였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버거움’의 중심에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고유한 경험이라고 하겠다.

연구참여자들은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 새로운 경험의 습득, 전문지식의 활용과 자신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어 꾸준한 활동을 요구하는 활동임에도 꺼리는 마음 없이 흔쾌히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새로운 기대감이 강한 자기동기를 부여하여(심문숙, 2006)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참여동기는 이기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동기로서 최근 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이타주의나 사회적 책임의 동기로부터 점차적으로 자기발전, 새로운 경험과 전문지식의 활용, 지식 습득 등 이기적 경험 추구적 동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소진(2004)과 홍연숙(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지향적인 동기유발로 인하여 수반된 책임감이 버거움을 가중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버거움’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과정인 ‘자신을 일깨워감’에서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책임감이 연구참여자의 경험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본 프로그램이 일반봉사활동이 아닌 봉사학습으로서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버거움’을 해결하는 ‘자신을 일깨워감’의 첫 번째 단계인 ‘의욕이 샘솟음’은 계속적으로 동기가유발되는 단계로 새로운 경험 습득, 흥미유발, 변화 인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강화됨으로써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힘의 원천은 사회적 책임감이라 판단된다. 프로그램 활동이 전개될수록 연구참여자들은 봉사수혜자, 그리고 봉사자간의 약속을 중요시하여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기하는 등 개인적인 일보다 봉사활동을 우위에 두고 꾸준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수혜자와 다른 봉사자를 고려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 발현된 행동으로 해석된다. 동기는 항상 변화하는 역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 동기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도 봉사활동 중 이타적 동기가 발생할 수 있음(안현

주, 2008)을 본 연구결과에서 입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강사로서 수혜대상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며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적 갈등을 책임감의 이행에 가치를 두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노력에 의해 극복함으로써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였다. 류나미와 최은희(2007)의 연구에서도 마음 다지기과 책임감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자기수련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송남호(2004)는 편견, 거부감, 두려움이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하여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진솔한 자신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발표능력,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능력, 문제 해결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심, 참을성, 포용력, 협동력, 리더십 등의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되었으며, 적극성, 성취목표 지향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책임감, 봉사정신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효과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김은영, 유숙영, 2008; 한인영 등, 2005; Eyley, Giles & Braxton, 1997; Loewenson & Hunt, 2011; Manzo, 2008; Smith, 2008)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였다. 대다수의 간호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흥미가 없거나 꺼리는 성향이 있고, 노인대상자 선호도가 매우 낮아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만으로 노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2002) 본 연구참여자들도 활동 초기엔 그러하였으나 건강한 노인과의 교감을 통해 점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이는 노인과의 교류가 잦거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주선옥, 2008)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김윤정, 정선아, 2001)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시적 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가중시켜 노인간호에 참여하게 될 간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노인간호분야를 회피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Mckinlay & Cowan, 2003). 그러므로 간호학생에게 건강한 노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

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로 확인된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효과는 노인간호교육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버거움'이라는 핵심문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부심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전공연계 봉사학습 활동이 참여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기대감을 충족시키며 참여자 자신의 능력개발과 학습성과를 지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공학문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이 유익하였기 때문에 봉사학습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홍연숙(2000)도 봉사자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그 활동을 지속한다고 하여 봉사활동에 의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더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긍지가 높아졌다. 아울러 매회 활동 후에 봉사자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으며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반복함으로써 실천적 경험지식을 습득함과 더불어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어갔다. 안효진(2010)은 전공관련 봉사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습득된 지식을 봉사하는 맥락 속에 포함하고 반성적인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실천적 지식으로 변형하여 전문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행할 때 봉사활동의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의해서 간호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경험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경험을 통해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Glaser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은 간호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간호학생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관절염 태극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태극권 국제 강사자격을 취득

하고 봉사활동을 12개월 이상 매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간호학생으로 총 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회의 포커스 그룹 토의와 15회의 개인면담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공연계 봉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기본 사회심리적 문제는 ‘버거움’이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기본 사회적 과정은 ‘자신을 일깨워감’으로 ‘의욕이 샘솟음’, ‘변화가 일어남’, ‘당당해짐’, ‘자부심으로 채워짐’의 4단계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버거움’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에 수반되는 내적 갈등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수혜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힘겨움이었다. ‘버거움’을 해결하는 ‘자신을 일깨워감’의 첫 단계는 ‘의욕이 샘솟음’으로 호기심이 자극되어 흥미를 유발하고, 색다른 특별함에 매료되어 참여할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며 적극성이 강화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가 일어남’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낯설은 것이 친숙해지고, 불편한 것이 편해지고,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는 등 변화가 느껴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당당해짐’으로 변화가 고착되어 가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단계로 다양한 봉사학습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단계는 이상의 단계를 거쳐 ‘버거움’이 해소되면서 그 빈 공간을 자부심으로 채워가는 단계로 자기성찰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학생의 전공연계 봉사학습 경험은 간호학에서의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다양한 전공연계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권영미, 송미승 (2002). 간호학생의 자원봉사경험: 부담감의 해결과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2), 177-186.

김도희, 김은영, 김경희, 이영선 (2007). 사회복지전공학부생의 자원봉사 활동 과정 질적 분석: 근거이론 적용. *소년복지연구*, 9(2), 101-122.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2002).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22(3), 21-36.

김순이, 김신미, 양승희 (2001).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봉사체험 연구. *질적연구*, 2(1), 66-76.

김윤정,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김은영, 유숙영 (2008). 봉사-학습이 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6(4), 233-254.

류나미, 최은희 (2007). 대학생이 경험하는 봉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1-26.

박정원, 하나선 (2003).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2(1), 27-35.

선우현 (2000). *대학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학학협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송남호 (2004). 간호학생들의 시각장애인 봉사체험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8(1), 50-60.

심문숙 (2006). 간호학생들의 독거노인 간호경험. *노인간호학회지*, 8(1), 73-82.

안현주 (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안효진 (2010). 예비 유아교사의 전공 관련 봉사학습의 의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71-485

윤은숙 (2008). 노인간호학 개설현황 및 교과과정 조사연구 - 4년제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188-194.

이성철, 이은승 (2008). *전공학문연계 봉사학습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연구보고서.

이소진 (2004). *대학생의 사회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사에 지도감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

주선옥 (2008).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10). *대학의 사회봉사 참여 현황 조사 설문 분석*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보고서.

한인영, 박형원, 김주현 (2005). 전공교육과 연계한 봉사학습의 효과 연구: 사회복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251-276.

홍연숙 (2000).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중단원인에 대한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2), 3-30.

황윤영 (2005). 간호학생의 노인병동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73-85.

Eyler, J., Giles, D. E., & Braxon, J. (1997). The impact of service-learning on college student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4, 57-76.

Kendle, J., & Zoeller, L. H. (2007). Providing time out: a unique service learning clinical experience. *Annual Review*

- of *Nursing Education*, 10(4), 41-54.
- Loewenson, K. M., & Hunt, R. J. (2011). Transforming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evaluation of a service-learning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6), 345-349.
- Manzo, A. K. (2008). Service learning. *Educational Week*, 27(34), 5.
- Mckinlay, A., & Cowan, S. (2003).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s working with older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3), 298-309.
- Gillis, A., & Lellan, M. M. (2010). Service learning with vulnerable populations: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7(1), Art. 41, 1-27.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mith, M. C. (2008). Does service learning promote adult development?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18, 5-15.

The Experience of Service-Learning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of Nursing

Kwon, Young Mi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service-learning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of nursing. **Method:** This is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application of a focus-group research method and Glaser's grounded theory. The nine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ervice-learning program to promote health in the elderly. They operated the program by acting as instructors for more than 12 months. **Results:** The basic socio-psychological problems fac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is 'burden'. The basic social proces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is 'self-realization' which has been successively shown in the order of the stage of experiencing a surge of will, the stage of recognizing the occurr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the stage of being confident, and the stage of obtaining self-respect. Throughout the process, the participants solved 'burden' in a positive way through reflections and reciprocity,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a service-learning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nursing major in order to provide the students studying nursing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rvice-learning, Experi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101, Gyeseon-gil, Gyeyang-gu, Incheon 407-740, Korea
Tel: 82-32-540-0184 Fax: 82-32-555-2614 E-mail: ymkwon@kic.ac.kr